

우리는 왜 모이는가?

마태복음 26:1-29¹

모든 문화에서, 그리고 각 세대와 함께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생일, 결혼식, 축제 등...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의 언어 그룹은 출신 국가를 기억하기 위해 식사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활 그룹은 함께 영적 여정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식사를 함께 합니다.

26장에 접어들면서 고난 주간의 화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는 방금 감람산에서 강연을 마치시면서, 당신의 형제자매들은 자신과 제자들이 취약할 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연약하실 때 누가 그를 높이겠습니까? 예수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때, 그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가 그분의 형제가 되어 주겠습니까?

[마 26:1-2]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적들의 계략을 알고 계십니다. 극적인 장면이 전환되면서, 마태는 우리를 예루살렘 중 심부의 대제사장의 사적이고 호화로운 집에서 열리는 수요일 모임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것은 **(1)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3-5절). 예수가 예언한 대로, 유대 종교 엘리트들은 그분을 체포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마 26:3-5]

-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 4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 5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까? 며칠 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요 11장). 이 기적은 군중 사이에 소동 이상의 것을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들과의 격렬한 논쟁은 그 열기를 현저히 높여 놓았습니다. 종교 지

¹ 단어 빈도수: 예수 (7회), 제자들 (6회), 유월절 (4회), 먹다 (4회), 마시다 (3회)

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계속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믿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늘 높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고 싶어 하지만, 군중 역시 예수를 밟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월절 후에 "은밀하게"(교활하고 간교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혁명만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 절기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일어나기를(체포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는 그 일이 단지 이틀 후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조용한 마을인 베다니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나병환자 시몬의, 아마도 예수께서 나병을 고쳐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의 집에서 **(2)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² 또한 예수님은 이곳,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 26:6-7]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 머리는 낮은 식탁 근처에, 발은 먼 쪽으로 두고 누워 있곤 했습니다. 한쪽 팔꿈치로 기대어 다른 손으로 먹습니다. 차분하고 격식 없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분위기가 충전되어(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은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는 명예와 헌신이 있었지만, 반대와 속임수도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여인(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마리아)이 옥합의 긴 목을 부러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12절에서 예수는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부끄러움 없이 "예수, 당신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십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²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온 집안이 나드³의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향기는 사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향을 바치고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즉시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 1파운드가 300데나리온에 팔릴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규직 평민의 300일치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수입입니다!! 이것은 달러 스토어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에서 딸에게 물려준 가보였을 것입니다. 메리는 평생 모은 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불순한 것이 없는 애정과 겸손한 경배입니다. 특별한 친구,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종종 사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Judy와 제게 세 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디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⁴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 26:8]

-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불평을 주도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는 이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재정에 기부하여 줌으로써 조금 더 훔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14-15절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열린 이 저녁 식사가 유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과 공모하도록 자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훨씬 적은 보상으로 예수를 배신합니다. 겨우 은 30개였습니다.⁵

³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인 약초 뿌리.

⁴ 복음서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장면을 세 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0:42)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값비싼 헌신을 드릴 만한 분이셨습니다.

⁵ 유대 율법에 따르면, 소가 노예를 뿔로 받으면 이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출애굽기 21:32). 스가라 11:12-13 참조.

유다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경외하는 대신,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데에 참가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유다는 묻기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 낼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른 제자들도 어리둥절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⁶ 그들은 그 순간을 붙잡지 못합니다.⁷ 베다니에서의 예수를 기리기 위한 이 모임에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주십니다 –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후하게 베풀고, 복음을 나누고,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헌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헌신은 이론의 세계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은 마음에서 입술로, 마음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약 당신이 예수를 따라야 한다면, 적어도 온건하고 사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에 있어서 사치스러웠고, 공적으로 드러나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정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 26: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는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는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녀의 비평가들은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는 그녀의 마음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의 보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물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독특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 과부의 동전, 물 잔, 깨진 옥합, ... 그는 당신과 제게서 무엇을 얻으십니까?

⁶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죽을 것이라고 이미 네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 16:21; 17:22-23; 20:17-19; 26:1-2)

⁷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음 장인 13장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사치스러운 헌신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십니다.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 26: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⁹

그 대조는 예수와 가난한 이의 차이가 아니라, "항상"과 "항상 그렇지 않음" 사이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 앞에는 언제나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들에게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경배할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 26: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녀의 행동은 예언적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사건, 임박한 그의 죽음에 대한 극적인 전조가 됩니다. 예수는 범죄자로서 죽을 것이며, 범죄자이므로, 장사를 위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을 장사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성령의 숨결에 의해 인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했다."

성령께서는 그녀가 영원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가득 차고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한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속삭임, 도움이 필요한 것을 주려는 충동, 예수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속삭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기쁨의 이유를 알려 주려는 속삭임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⁸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책을 펼칠 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행동이 거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⁹ "너희에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신명기 15장 11절을 언급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상식이나, 실용적인 것, 또는 생활의 바쁜 일에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이 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 26: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유의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오늘날까지 마리아의 행적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영원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옥합 향아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신, 즉,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위해 산 제사로 쏟아부은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를 위해 달콤한 사랑의 향유를 부어 드리겠습니까?

17절에서는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수난 주간의 목요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마 26: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것은 **(3)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1,4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린 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고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지막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 공의는 유대인과 애굽인 모두에게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족은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문설주에 묻은 피를 칠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린 양의 대속 아래 섰든지, 아니면 공의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린양의 피 아래 있었다면, 죽음이 여러분 위로 넘어가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열 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통과해 자유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은 출애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마 26:18-19]

18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는 흥미로운 명령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그 사람은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쉽게 눈에 띄는 일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여성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남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갑니다(베다니에서 다락방까지).

예수는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분의 순간입니다. 그를 둘러싼 예루살렘의 모든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배신과 그가 직면하게 될 고통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날 당시에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이 유월절에 주권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이 순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감사드릴 시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목요일 저녁 해가 진 후, 예수는 십자가를 목상하면서 식탁(트리클리눔 U자형)에 기대어 앉아 계십니다. 열두 제자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를 배반한 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 식사와 그 의미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예수를 배반한 자가 같은 식탁에 있을 것입니다 – 경청하고, 참여하면서.

[마26:20-22]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1)앉으셨더니

21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여 나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주여 내가 아니지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밀하게 결속된 집단에서 배신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충성의 절정은 친구를 배신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26: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빵 한 조각이나 빵 속의 고기 한 조각을 가져다가 식탁 위의 일반 소스 그릇 (과일, 향신료, 식초로 구성)에 담그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와 동시에 접시에 손을 담그고 있다면, 그는 그의 곁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26:24-25]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는 예언된 대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그를 배반한 자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랍비여, 내입니까?" 유다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바로 그거야 - 맞아"라는 의미)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는 유다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에 동의하십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유월절 식사를 마치자마자 떠났다고 말합니다(요 13:30).

배반자가 사라지고, 예수는 이제 유월절을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 26: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는 식사의 주인으로서 빵을 집어 들고 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로, 그는 쪼개진 빵을 죽음의 순간에 수척하고 찢어진 자신의 몸이 바쳐진 것과 연결하십니다.

최후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유월절을 단번에 성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천 년이 넘도록 해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앉아 있을 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¹⁰

¹⁰ 이 잔치의 중심은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일부를 처리하는 의식이 끝난 후, 그 시체는 개인 집에서 10명 이상의 그룹으로 구워서 먹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죄를 넘기실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대신해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는 궁극적인 탈출을 이끌어 속박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마 1:21; 20:28).

오늘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은 것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축하하는 것은 **(4) 우리 구주를 기억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을 취하는 것은 그분과 온전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을 취하는 것은 그분의 몸, 즉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제자매,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26:27-28]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메인 요리가 끝난 후, 예수는 잔, 구속의 잔을 들어 올리십니다.¹¹ 이 잔은 예수가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흡수하실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짊어지셔서 공의가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하고 결속된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의 희생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예수께 맡기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은 예언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마26:29]

¹¹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셋째 약속,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에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다시는 식탁에 앉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서원을 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첫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엄숙한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히 8-9장 참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쳐진 서약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가 유월절 최후의 어린 양으로서 겪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잔치 행사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최후의 모임에서,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 그는 잔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는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항상 경외 받으실 것이며, 그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드높여질 것입니다.

<성찬식>

주님의 만찬은 언제나 예언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는 새 나라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빵과 잔에 참여할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갈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¹²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식사는 가장 큰 식사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성찬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 지로 인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우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식사에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분, 예수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와 동일시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살펴 보아주시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이 그걸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예수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이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¹² [마 26:30]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할렐 시편(시편 113-118편)은 유월절 식사가 끝날 때 불렀다.

배반당하시던 날 밤, 예수는 떡을 집어 드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위한 것이니라.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떡 나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쪼개지셨습니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잔을 들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잔 나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성찬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컵을 통로로 건네면서 예배 팀과 함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